

이성 구청장 '공약이행 평가 4년연속 최우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가
천왕산 가족캠핑장 조성 등 89개 공약 이행률 75% 달성

이성 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성 구청장은 △'2018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고 등급(SA) △'2020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등에 이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1만6307개의 공약 정보를 분석해 평가하고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50점) ▲목표달성(50점) ▲주민소통(100점) ▲웹소통(Pass/Fail) ▲공약일치도(Pass/Fail) 등 5개 분야다. 각 분야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SA, A, B, C, D의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구로구는 5개 평가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해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구로구는 2020년 12월 기준 지역균형발전, 교육·문화, 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성 구청장.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도시, 녹색도시, 복지·안전 등 5개 핵심분야 89개 공약사업에서 75%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천왕산 가족캠핑장 조성, 오류1동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개봉동 시멘트공장 부지 뉴스테이 건립,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구로디지털단지 구 정수장부지 내 복합문화공간(G타워) 조성, 위험시설물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실외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한편 구로구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련 각종 평가에서 12년 연속 수상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부문 선거공약 분야 우수상을 시작으로 △2011년 청렴 분야 우수 △2012년 일자리 분야 최우수 △2013년 공약이행 분야 우수 △2014년 지방선거부문 선

거공약집 분야 최우수 △2015년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 △2016년 청년문제 해소 분야 우수 △2017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 △2018년 지방선거부문 선거공약 분야 최우수 △2019년 시민참여·마을자치 최우수 △2020년 지역문화활성화 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김현석 기획예산과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온 결과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경로당·동주민센터·복지관·민간시설 등 248곳 지정

구로구가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 무더위쉼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은 경로당 192개소, 각 동주민센터 15개소(개봉2동주민센터 미운영) 복지관 5개소, 민간 시설 36개소 등 248개소다.

운영 시간은 경로당의 경우 평일 오후 1시~5시, 동주민센터·복지관·민간 시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동주민센터 15곳과 복지관 5곳은 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오후 9시까지 연장 가동된다.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6월 1일 기준 현재 134곳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이다.

모든 쉼터에는 전담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폭염 특보 발령 등



구로구가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에 무더위쉼터를 마련했다. <사진은 천왕이편하우수 6단지 경로당>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구로구는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위해 냉방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운영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저소득 홀몸어르신 보호도 강화한다. 각 기관별로 지원하고 있는 도시락·말반찬 또는 경로식당 지원대상자, 재가 대상자 등의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한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무더위쉼터가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구로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우수사례 등 210건 채택

18일 구정 일반 질의-21일 시책질의 진행



구로구의회가 지난 6월 15일 제302회 정례회 중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끝으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6월 15일, 제302회 정례회 중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끝으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15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회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의 개별 소감 및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진 후 구청 5층 강당에서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총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은 강평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응과 향후 대책, 그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와 구민 불편사항 해소 노력 등 구민 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원활한 백신 접종 및 사후관리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반사항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 극복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은 강평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나 각종 현안 및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노후건축물 예경보서비스, 시설관리공단

비대면 스마트 주차 서비스 확대 등을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앞으로는 코로나19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진일보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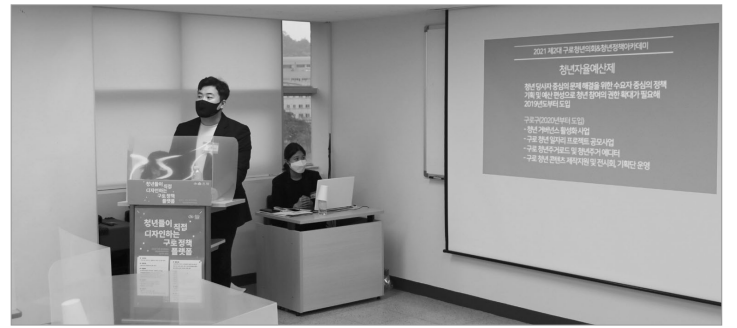
이어 박동웅 의장은 총평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72건, 우수사례 87건이 채택됐으며, 이번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상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구로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준 집행부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국장들을 상대로 구정질의(일반분야)와 답변을 듣고 21일에는 제4 본회의를 열어 이성 구청장을 출석 시킨 가운데 구정 전반 구정질의(시책분야)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5차 본회의에선 안건을 의결하고 29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채홍길 기자>

“청년정책 발굴 앞장” 제2대 ‘구로 청년의회’ 출범

청년의원 34명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출범식 갖고 본격 의정활동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청년정책 발굴·수립에 앞장 설 제2대 '구로 청년의회'가 출범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청년정책 발굴·수립에 앞장 설 제2대 '구로 청년의회'가 출범했다.

구로구는 “지난해 첫 출범해 구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이끌어 냈던 '구로 청년의회'를 올해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구로 청년의회는 지난달 말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의원 총 34명을 선발했다.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구로구민,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나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 활동기간은 올 9월까지다.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2명, 간사 1명)과 상임위원회, 사무국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구로 청년의회는 정책, 조례에 낮은 청년들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멘토링을 우선 실시한다. 6월부터 매주 화요일 6회에 걸쳐 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멘토와 함께하는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구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7월에는 구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8월에는 구의원들과 함께 구로 청년정책포럼을 열어 정책 발제·토의와 수립 내용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의회에 전달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출범식은 지난 8일 오류문화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년의회 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성 구청장, 박동웅 구의회 의장 등의 영상 축사가 전달됐으며 의원들에게는 위촉장과 배지가 수여됐다.

출범식 후에는 정책 전문 강사의 '입법으로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교육환경안전, 문화예술, 보건복지, 일자리창업 등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 활동주제 선정에 대해 토의했다. <김유권 기자>

구의회 상임위원별 현장 의정활동 마쳐

행정기획위, 구로시장 청년몰·청년이룸·동양미래대 찾아 복지건설위, 천왕산 가족캠핑장·인공암벽장 등 현장 점검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명숙)는 구로구 청년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 파악을 위해 구로시장 청년몰과 청년이룸, 동양미래대 메이커스캠퍼스를 차례로 방문 했다.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구로시

청년몰'과 천왕역 지하에 위치한 청년 일자리 문화공간 '청년이룸' 지역주민 및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동양미래대 메이커스캠퍼스' 현장에서, 위원들은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각 사업의 추진현황을 청

취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 방안에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일자리, 복지, 주거 등의 실질적인 정책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간 추진 사업들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과 지역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며,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날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개장한 천왕산 가족캠핑장 일대를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캠핑장 및 인공암벽장 등 캠핑장 주변 복합문화공간의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며 현장 관리 실태 및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시설물 관리

자 및 구청 관계자에게 캠핑장과 인공암벽장 이용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며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다양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활동을 마치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은 상시 안전점검 실시하여 캠핑장과 인공암벽장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당부하면서 “천왕산 가족캠핑장 일대가 관내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는 지난 14일 제302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행정기획위원회의 구로시장 청년몰 영프라자(왼쪽)과 복지건설위원회의 천왕산 인공암벽장(오른쪽) 현장>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팩스: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7월부터 바뀌는 제도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 다주택자 세율이 현재보다 30% 인상된다. 7월부터는 4세대 실손 보험이 적용되어,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원, 처방 8천원에서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상향된다. 노동법도 7월1일부터 바뀌는 정책이 있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주52시간 적용이 되어 영세 사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7월 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이며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의 법률에 대해 알아 본다.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63%로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이 기존 60%→60%로 강화된다. 또 하반기 3기 신도시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된다. 공공 전세주택 통 11만4천가구가.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확대되어 전국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적율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혜택이 제공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街路住宅整備事業)이란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미니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전면 철거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반 시설이나 가로망(街路網)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부지 내 노후 주택 등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최고 7층 높이까지 신축할 수 있다.

◇2년 미만 보유 다주택자 세율 인상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크게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p 인상되며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3기 신도시 무주택자 요건 100% 입주

2021년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첫해여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는 분청약 1~2년 전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 분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송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만 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로또'에 가까운 당첨 확률이다. 하지만 발품을 팔고 정보를 취합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도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최근 3기 신도시 종합정보포털(3기신도시.kr)을 개편해 선보였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각종 청약 정보와 진행 상황이 제공되며, 신설된 '무엇이 달라지나' 메뉴를 통해 3기 신도시의 지향점과 주택 유형·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다.



7월부터 바뀌는 정책이 시행된다. 2년 미만 보유 다주택자는 세율이 60% 적용된다. 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자신의 청약 가점을 꼼꼼하게 계산하고 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당첨자의 9.8%에 달한다. 한 세대에서 2명 이상 청약하거나 가점을

다. 감면한도는 최대 100만원이었다. 또한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똑같이 300만원 한도로 6월말까지 연장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

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해 왔다. 산업재해 보상방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적용제의 신청사유가 엄격하게 제한 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돼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7월부터는 질병 부상 임신 등의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에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해당 된다.

◇7월6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한만수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60%서 63%로 상향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로

잘못 입력해 청약 규정 위반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건 물론 1년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애초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7월부터 4세대 실손 보험 출시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된다. 먼저 4세대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통상 보험은 예전에 설계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고 혜택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고, 통원 공제금액은 외래 1~2만 원, 처방 8천 원에서 급여 1만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상향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는 부분이다.

만약 100만원이상 15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료는 100%가 인상된다. 150만 원~300만 원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무려 300%가 보험료가 인상된다. 따라서 병원을 덜 이용할 경우엔 유리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4세대 보험이 안좋은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우도 있다. 병원을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하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타지 않았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5% 인하된다. 여기에 보험료도 기존 상품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종료

자동차 세금이나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자동차 30% 개별소비세 인하 제도를 작년 12월까지 시행했다가 올해 6월까지 연장됐

하는 도로 교통법은 10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공중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운송업과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52시간제를 준수해야만 한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한다해도 이를 위반할 경우, 4개월의 시정 기간을 우선적으로 거치고, 그마저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0인 이상 299인 이하 공휴일 유급제

또한 같은 날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의무 부여된다.

근로기준법의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무원, 관공서에만 적용되었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가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었다. 이젠 중소기업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임시 공휴일 등 '빨간 날'에 쉴 수 있다. 만약 근로하는 직원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의무 지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건강보험료율 등 인상 등도 같이 진행된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수

“회원들 친목 강화·지역사회 봉사에 앞장”

김중태 구로재향경우회 신임 회장 인터뷰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의재향경우회 서울시 구로구지회 신임 회장에 김중태 현 사무국장(71세)이 지난 3월25일 구로경찰서 회의실서 열린 제36차 정기총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회장에 당선됐다. 신임 김 회장을 지난 6월 15일 구로동 경우회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 우선 축하 드린다. 회원들께 인사말을...

우선 저를 제19대 구로경우회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경우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린다. 회장으로 자만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 또 경험을 살려 구로구민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도 펼치고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 친목·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 현재 회원들은 얼마나 되나?

경우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민생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봉사, 공익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다. 구로경우회는 회원 1천여명 중 부회장 7명, 이사 25명과 그리고 자문위원 30명이 함께 구로경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취임후 회원들을 위해 추진 할 수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회원들이 현역에서 퇴직해 모두 60세 이상이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학교 아동지킴이와 학교 보안관 등이 있고, 봉사활동차원으로 방법순찰, 교통안전거리캠페인, 산불예방, 2인1조 사회공헌순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1월21일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구로경우의 날'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행사를 진행하겠다.

- 회원들께 한마디 한다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도 회원들 마음안에 회원 모두가 하나되면 '현역시절과 같은 구민을 위한 봉사와 의미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면 못할일도 없습니다. 이제 퇴직 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후건강문제, 경우회 재정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모두가 함께하는 변화된 모습의 새로운 구로경우회를 만들어 나갈 것 입니다. 구로경우회는 경찰 선배로서 현직 경찰 후배들과 합리적으로 유대를 강화하며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폭을 넓혀 나아가며 후배 경찰관으로부터 존경받는 선배 경우가 되도록 구로경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신임회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경우회의 특정한 조직을 기반으로 상부상조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앞장서는 안보단체로서 구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보조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성큼 다가온 여름... 계속되는 '나눔 구로'

열무김치·영양제·상품권·집수리까지... 다양한 나눔 활동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구로구약사회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 유산균, 어린이 비타민 등 영양제 1800개를 기부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주)이모텔리(대표 김성수)가 지난달 27일 관내 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위해 일회용 손소독제 88만3440개를 기부해 구로구는 이를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에 배부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로구 약사회(회장 노수진)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가정과 아동복지시설에 유산균, 어린이 비타민 등 영양제 1800개를 기부했다.

동별로도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신도림동은 지난 8일 아동이 주거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펼쳤다. 서울드림신용협동조합(대표 이창원)의 지원을 받아 동자원봉사협력단(단장 하숙현)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수리 등을 진행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서울드림신협이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달 3~4일 이틀에 걸쳐 구로3

동적십자봉사회(회장 김혜자)는 열무김치를 담고 취약계층 100가구에 김치와 떡 등을 전했다.

같은 날 구로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자)는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50가구를 위해 밑반찬을 지원했다.

개봉1동 경서농협의 후원으로 지난달 18일 경서농협 부녀회(회장 홍월선)가 저소득층 50가구에 열무김치 5kg, 백미 10kg씩을 전달했다.

지난달 14일 수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민호)는 관내 주민, 가게, 교회 등의 후원을 받아 한부모가정 10가구에 김치·빵·과자·화장품·수세미 등이 담긴 나눔 꾸러미를, 소규모 자영업자 2가구에 온누리상품권 50만원씩을 전했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은 "성큼 다가온 여름,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010-9096-1144

사랑의열매와 함께하는 구로구니눔네트워크 구로사랑 희망이음 캠페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기부자와 취약계층 주민을 연결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지역맞춤형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문의 02-867-1695 구로희망복지재단

무단투기 근절 '마을마당 표지석' 제막식 개최

한·중다문화깔끔이봉사단, 도시녹화 어르신 휴식공간 조성



한·중다문화깔끔이봉사단은 지난 13일 구로4동 마을마당에서 각계 인사와 다문화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마당 표지석 제막 및 축하테이프 절단식을 가졌다.

한·중다문화깔끔이봉사단(단장 김영희)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구로동로22길 57(구로4동) 마을마당에서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박철성-서호연 구의원, 민숙경 구로4동장, 현효석 한·중다문화경로당 회장, 다문화단체 임원 및 구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마당 앞 표지석 제막 및 축하테이프 절단식을

개최했다. 이곳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으로 칩거리 지역이었다. 한·중다문화봉사단이 협조하여 우리동네 무단투기 근절 및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주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으로 실시한 '어르신이 행복한 마

을마당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하게 됐다. 한·중다문화봉사단 김영희 단장은 "마을마당을 만들어 놓고 보니 동네가 깨끗하고 보기도 좋잖아요. 주민들이 무단투기지역을 우리 스스로 가꾸고 조성해 구로에서 제일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유권 기자>

'담장 허물기·부설주차장 개방·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구로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개인 소유의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진은 주차장 조성 전과 후 모습)



구로구가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소유의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담장 허물기' '부설주차장 개방'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으로 나뉜다. '담장 허물기'는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일정 요건을 갖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1면당 900만원씩 최대 2800만원을, 공동주택은 1면당 70만원씩 단지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은 학교, 도서관, 종교시설 등이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하면 최대 2500만원의 주차장 시설 개선비와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국·공유지, 사유지 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1년 이상 공유하면 1면당 최대 240만원의 주차장 조성비와 함께 운영 수입금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권오신 주차관리과장은 "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쾌적한 골목 환경도 조성할 수 있는 그린

파킹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주차관리과 860-2134.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우리에게 밥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존재인 동시에 생명과 같다. 밥은 주식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간식이 되고 후식이 되며 술이 된다. 쌀로 밥을 지어 주식으로 먹고 떡이나 과자를 만들어 간식으로 먹는다. 밥술에 남은 밥에 물을 부어 송충으로 만들어 후식으로 마시며 또 술을 빚어 마신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켜 술을 만든다. 주식인 쌀로 술을 만드는 만큼 우리 문화에는 술이 깊숙이 배어 있다. 술에 관한 속담이나 관용어가 많다. 죽대가 없고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보고 '술에

한국인의 음주문화 ①

포도로 만들고, 러시아의 보드카는 밀이나 보리 호밀로 만든다. 위스키는 감자를 주원료로 한 증류주이다. 쌀문화권인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막걸리나 전통주를 쌀로 만드는 것처럼 쌀로 술을 만든다.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쌀 술이 가장 많지만 감자나 옥수수를 즐겨 먹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감자나 옥수수로 술을 빚는다. 또 술을 빚을 때도 쌀로 밥이나 죽, 떡을 만든 뒤 이를 발효시

물탄 듯, 물에 술 탄 듯'이라고 한다. '남의 술로 제사 지낸다'는 말은 조상에게 제사를 마지 못해 지낸다거나, 몹시 가난한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이 밖에도 '술 사주고 뽕 맛는다' '술먹은 개' '술 취한 사람과 아이는 거짓말을 못한다' 라는 관용어 이외도 주주객반(主酒客飯)이라는 한자숙어는 주인은 술을 권하고, 손님은 밥을 권하며 서로 다정하게 식사하는 광경을 말한다. <본지 회장>

구로구, 양봉체험장서 수확한 꿀 어려운 이웃에 기부 아카시아꿀 1.2kg 150병 구로푸드뱅크마켓센터 전달

구로구가 양봉체험장에서 수확한 벌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사진) 양봉체험장은 구로구가 주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동 주말농장 5구역(공동 62)에 마련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꿀벌에 대한 이론 교육과 벌꿀 시식, 채밀 작업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는 4, 5월 2개월간 양봉체험장에서 아카시아꿀 1.2kg 150병을 생산했다. 생산된 꿀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식용안전성



검사를 거쳐 지난 15일 구로푸드뱅크마켓센터로 전달됐다. 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김유권 기자>

서울남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서울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일 양홍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최종임 금천구지회 지회장과 함께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몰군경유족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명패'를 직접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김OO님은 6·25전쟁 시기 항

토방위대원으로 참전하여 전몰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이다. 김OO님은 국가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군경유족을 기억하고 찾아주신 것에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지속하여 진행 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서울남부보훈지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의 場'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 유튜브로 실시간 주민 참여

구로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4개동(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에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주민총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송출 시간은 개봉1동 6월 18일 오후 2시, 오류1동 6월 29일 오후 3시, 구로4동 7월 6일 오후 5시, 가리봉동 7월 7일 오후 5시다.

참여 주민들은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예산, 자치계획을 공유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와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총회 전·후로 실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의제들이 최종 결정된다. 7월 6일까지 동별 여건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구로구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4개동에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주민총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은 구로4동 주민총회 모습>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곽정희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온라인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정책과 예산의 결정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 달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구로를 위한 주민총회와 투표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2019년부터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등 4개동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동 단위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등 풀뿌리 자치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김철수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구로구의회 김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전실천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해 나섰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캠페인으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메시지를 든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구로초등학교 박혜경 교장의 지명을 받은 김철수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의 다음주자로 구로구의회 이명숙 의원, 이재만 의원, 정형주 의원을 지명했다.

평소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구로구의회 김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실천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온 김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꿈과 미래를 지키는 일과 같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영상콘텐츠 제작자, 웹·앱 디자이너

'경단녀' IT분야 취업지원 맞춤형 교육

"4차산업시대 유망 직종에 도전해 보세요!"

구로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IT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구로구는 "경력단절여성들이 4차산업시대에 필요한 빅데이터 활용, 영상편집, 웹 디자인 등의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IT분야 핵심실무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IT분야 핵심실무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초심자와 전공자·경력자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초심자 과정은 ▲빅데이터 마케팅전문가(교육시간 320시간) ▲영상콘텐츠제작자(220시간) ▲웹·앱퍼블리싱 디자이너(200시간)로

이뤄진다. IT분야에 생소한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 방법부터 실무 적용까지 교육한다.

전공자·경력자 과정은 SNS마케팅, 데이터라벨러, 이모티콘·굿즈 제작 등 단기간 직무 심화와 멘토링 연계, 포트폴리오 지원,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로구는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발굴단'을 통해 교육생과 G밸리 기업을 연결해주고 취업까지 앞선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 관련 분야 전공자·경력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867-8834)로 전화 신청하

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kurowoman.com) 참조.

이 밖에도 구로구는 '온라인 플랫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8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 포트폴리오 구성, 수익구조 창출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미 창업한 선배와의 소통 기회도 제공된다. 수강대상은 구로구 거주 20~50대 여성이며, 수강신청은 교육기관인 엠에이치스쿨 이메일(papi99@hanmail.net)로 하면 된다. 선착순 10명 모집.

강월명 일자리지원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백종은 전 구로구청 감사실장, 시흥시 제5대 시민호민관 위촉

백종은(62) 전 구로구청 감사실장이 시흥시 시민호민관으로 위촉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5일 백종은 전 감사실장에게 제5대 시민 호민관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백종은 전 감사실장은 지난 14일 구로구의회의 감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사표를 제출했다. 백 전 실장은 서울시 동작구청과 구로구청에서 37년간 재직했으며 지난 2015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구로구 도시발전기획단장, 건설교통국장, 감사실장(개방형 사무관)을 지냈다.

시민호민관은 시민의 권익구제, 갈등해소,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4년이다.

<채홍길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오른쪽) 15일 백종은 전 구로구청 감사실장에게 5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백종은 전 실장은 "시민 호민관은 앞으로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위촉직 신분으로 상근 독립제 형태로 근무 하게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 '자기소개서 작성법' 온라인 특강

관내 거주 또는 소재 고재학 수험생 60명 대상 24일 진행

구로구가 2022학년도 대입 수시를 대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을 24일 개최한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자기소개서 전문상담사 김용택 강사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강의는 구로구 거주 또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 60명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60명 선착순 모집으로 수강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22일 오후 6시까지 구로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edu.guro.go.kr/study)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3028. <한민수 기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구로구가 6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월에 202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 모바일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 간편결제 앱, 고지서 전용계좌, ARS(1599-3900),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구로구는 구청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64, 2765, 2766. <김유권 기자>



관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561명

오류동 A식당 관련 8명 등 일주일새 30여명 늘어

서울 확진자 4만7,133명-사망자 504명



구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돼 일주일전에 비해 30여명이 늘어 17일 현재 누적 1,561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구로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17일 현재 신규 확진자 오류동 소재 A식당 관련 8명 집단감염(전체 10명) 등 일주일전에 비해 30여명이 늘어 누적 1,56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이 11명이며 1,481명이 완치 퇴원, 87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11명, 해외입국자 429명 등 모두 740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동 옥(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오류동 A식당 관련 8명,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콜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965명, 해외 입국 13명, 기타(조사중) 404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7일 현재 모두 4만7,133명으로 사망자는 504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은 2,851명 ▲강남구 2,830명 ▲강서구 2,266명 ▲관악구 2,169명 ▲노원구 2,162명 ▲중랑구 2,085명 ▲서초구 2,040명 ▲은평구 2,020명 ▲동작구 1,954명 ▲성북구 1,945명 ▲강동구 1,898명 ▲동대문구 1,750명 ▲영등포구 1,742명 ▲양천구 1,630명 ▲구로구 1,561명 ▲광진구 1,553명 ▲마포구 1,504명 ▲도봉구 1,456명 ▲강북구 1,366명 ▲성동구 1,293명 ▲용산구 1,286명 ▲서대문구 1,184명으로 22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789명 ▲금천구 782명 ▲중구 7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기간 연장

6월30일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서 신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접수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6.1.1.~2002.12.31.) 청년으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7월 중 서울청년포



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구청 일자리지원과 860-3447, 3462. <김유권 기자>

관내 주민 1차 백신접종률 24.8%

백신부작용 신고도 늘어 누적 사망 2건 등 334건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관내 만18세 이상 내·외국인을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약 33만 5천여명이다. 구로구 전체 주민 43만여명 중 77%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6월16일 현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등 1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10만5,680명으로 접종 대상 주민 33만 5천여명의 24.8%가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을 마친 주민도 1만8,11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접종대상자만 보면 1차 14만8,894명 가운데 10만5,680명이

접종을 마쳐 7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접종률은 평균 75.1%다.

이와 함께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334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334건을 증상별로 보면 16일 현재 △사망 2건 △아나필락시스 5건 △기타 4건 △경미 증상 323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개봉동 빌라서 화재... 주민 40명 한밤 대피 소동

4명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

개봉동의 한 빌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일어나 주민 40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일 소방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개봉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민 40명이 대피했으며 연기흡입으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피해는 약 2천여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소방은 한 가구의 거실 TV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채홍길 기자>



지난 10일 밤 9시쯤 개봉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 40명이 대피했다. (사진은 화재가 난 빌라 내부 모습)

“종사자 백신 접종 음식점 ‘안심스티커’ 신청하세요”

식품접객업소 5,500여 개소 대상 ... 주민 안심, 경제 활성화 부추

구로구가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식품접객업소에 안심스티커(사진)를 배부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외식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주민들은 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안심스티커를 제작·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5,500여 개소 중 종사자 전원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곳이다. 구로구는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접종 내역을 확인한 후 ‘우리 업

소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심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안심스티커 부착 업소에 대해 구로구 안심식당 지정 시 적합 여부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안심식당은 종사자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음식 덜어먹기, 소독·환기, 위생적 수저관리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지도 앱(카카오맵)에 위치, 전화번호 등 업체 정보



가 홍보된다. 개인 접시, 덜어 먹는 용기, 수저 포장지 등 최대 15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받는다. 유병철 위생과장은 “종사자 접종을 완료한 식품접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일상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백신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의) 구청 위생과 02-860-3233. <김유권 기자>

‘마을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11개 동주민센터서 사전 예약 후 전화·대면상담

구로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을법무사 상담은 상담이 지정된 동에 마을법무사 1, 2명씩을 배치해 생활 속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출생·혼인 등의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등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화와 대면 상담을 병행한다. 상담은 13명의 마을법무사가 배치된 관내 11개 동주민센터에서

매달 1, 2회씩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이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상담카드 작성) 동별 운영 시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정기상담 일정, 예약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홈페이지(legal.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구는 월 1, 2회 관내 16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문의) 구청 기획예산과 860-3393. <한만수 기자>

구로구 레슬링팀, KBS전국레슬링대회 금3 획득

정용석·서범규·강대규 선수 금메달 '영예' 자유형 단체전 우승, 고수진 감독 지도감독상



구로구 레슬링팀이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구로구 레슬링팀이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46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다.

대한레슬링협회, KBS한국방송, 강원도레슬링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 간 강원도 평창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됐다.

구로구 레슬링팀은 선수 6명이 참가해 4명이 메달을 획득했다. 자유형에서는 70kg급 정용석(국가대표) 79kg급 서범규 86kg급 강대규 선수가 금메달을, 125kg급 기현준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도 자유형 단체전을 우승했으며 서범규 선수가 최우수선수상, 고수진 감독이 지도감독상을 수상했다.

구로구 레슬링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목표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채홍길 기자>

“무서운 이야기로 더위·스트레스 날려보세요”

18일 오후 8시 유튜브 납량특선 '금요괴담회' 생방송

구로구가 납량특선 온라인 토크쇼 '금요괴담회'를 개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토크쇼 '금요괴담회'를 마련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금요괴담회는 '미리 보는 납량특선'이라는 주제로 최근 대중에게 관심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추리·미스터리·공포 등 장르문학을 소개하고 시대적, 역사적 의미를 고찰해보는 온라인 토크쇼다.

이번 토크쇼에는 장르문학 작가 정명섭, 김선민 씨가 출연해 추리소설과 좀비·크리처(괴물) 분야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대중에게 친숙한 '설특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납량특선 온라인 토크쇼 '금요괴담회'를 마련했다.

홍즈 '아르센 뒤편' 등 추리소설과 '새벽의 저주' '워킹 데드' '웜 바디스' 등 공포영화·드라마에 대해 설명하고 분석한다.

중간 중간 귀신 분장을 한 보조 출연자들이 깜짝 등장해 오싹함을 더한다.

행사는 18일 오후 8시부터 2시

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시청을 원하는 이는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된다. 15세 이상 관람 권장.

실시간 댓글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물 이벤트도 마련된다.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출연 작가가 저서를 직접 선물한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은 “금요괴담회를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초대시

불이(不二) 서로 기대어

시인 이혜선



고속도로 달리다가
나무에 기대고 있는 산을 보았다
허공에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았다
배를 타고
청산도는 가는 길에
물방울에 기대는 물을 보았다
갈매기 날개에 기대는 하늘을 보았다
흙은 씨앗에 기대어 피어나고
엄마 젖가슴은 아기에 기대어 자라난다
하루해가 기우는 시간
들녘 끝 잡초들이 서로 어깨 기대는 것을 보았다
그 어깨 위에 하루살이들 내려앉아
깊은 잠 들고 있었다

- 시인, 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세종대 문학박사
- 1981년 월간 '시문학' 추천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부이사장. 국제 펜 한국본부 이사. 한국 문학비평가협회 부회장
- 시집: 『뚝 한 마리』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이』 『바람 한 분 만나시거든』
- 평론집: 『문학과 꿈의 변용』 『이혜선의 명시산책』

구로문화원 '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미술·음악·어학 등 개설... 21일부터 선착순 전화·현장접수

구로문화원이 '문화예술강좌' 3분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문화예술강좌'는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 3분기 수업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공예/미술강좌 '미술(서양화)' '팝아트' ▲생활문화강좌 '사진교실' '캘리그래피' 등 ▲어학강좌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등 ▲음악강좌 '기타교실' '우쿨렐레교실' 등 ▲전통문화강좌 '서예' '수묵화' 등이 개설된다.

8~13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야금교실' '단소교실'도 운영된다.

강좌당 주 1회 또는 2회, 횟수당 50~120분씩 진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한 반당 10~30명으로 수용 인원을 제한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이는 21일부터 구로문화원에 전화(851-0837) 또는 방문(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으로 수강료는 9만원이다.(영어회화 기초반 6만원, 교재·재료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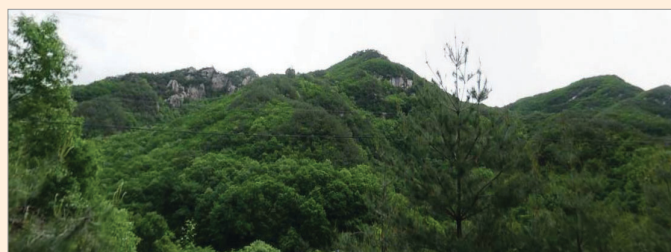
구로문화원 홈페이지(www.gurocc.or.kr)에서 개설 강좌,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구로문화원 851-0837, 구청 문화관광과 860-258

<채홍길 기자>

이제 산·임야가 대세이다

임야 1평 3,000원... 서울 땅 1평이면 1만평을 산다!



*산나물·산약초를 키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뇌삼 씨를 뿌려 보지 않겠습니까?

남의 산(임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나무 한그루에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거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 쓸모없는 나무는 베고, 쓸모있는 나무를 가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가족 캠핑장을 조성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전 세계는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강제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산림청은 매년 전국 사유지 임야를 2천여만평씩 국유림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임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010-9096-1144